

# 신라면세점, 제주 내 어려운 이웃 돋는다

제주지역사회와 나눔사업 MOU 체결

신라면세점 제주점은 지난 12일 제주시 연동주민센터에서 '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동 주민센터'와 연동 내 어려운 이웃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불어 한마음 나눔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신라면세점 제주점 고낙천 점장, 연동 주민센터 김이택 등장, 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상봉 민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신라면세점 제주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명절 나눔 물품 지원, 바자회 수익금 전달 등의 활동을 하면서 연동 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도울 예정이다.

또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초등학생 4·5·6학년을 대상으로 생일축하 행사, 문화체험 등을 진행하는 청소년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다복한 체험(다 함께 행복한 체험을 하자)'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도 지원한다.



신라면세점 제주점이 제주지역사회와 나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동 주민센터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연동 주민을 찾아 신라면세점 제주점의 사회공헌 활동과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고낙천 신라면세점 제주점 점장은 "제주지

역에서 시내면세점과 공항면세점을 동시에 운영하는 만큼 제주도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 일동제약그룹 헌혈의 날 맞아 '사랑의 헌혈운동'

일동제약그룹의 임직원들이 헌혈의 날을 맞아 본사 대강당에서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랑의 헌혈운동'은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대한적십자사가 주관하는 헌혈 캠페인으로 대한적십자사는 매월 13일을 '헌혈의 날'로 지정해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일동제약그룹 임직원들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일을 하는 제약회사의 일원으로서 혈액이 필요한 이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헌혈 운동에 참여했다.

법무팀 류종화 사원은 "요즘 혈액 수급 사정이 좋지 않아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헌혈 하는 것이 건강에 해가 없을뿐더러 내 몸이 건강한 상태라는 뜻이기도 해 뛰듯하다"고 말했다.

일동제약그룹 측은 '함께하면 행복해지는 국민건강연구소'라는 슬로건 하에 다양한 사



일동제약 임직원이 사랑의 헌혈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일동제약

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유재희 기자 ryusoul@111.com

신점[神占] 운세 3월 14일(목) 1월 27일

쥐	60년생 소망이 이루어 지겠습니다. 72년생 짭짤한 수입 등으로 재수가 좋을 것입니다. 84년생 동료의 유혹에 동조되지 마세요. 96년생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소	61년생 아직 귀하의 때가 아닐 것입니다. 73년생 여태껏 노력을 한 보람이 있겠습니다. 85년생 만사가 평온합니다. 97년생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것도 이로울 것입니다.
호랑이	50년생 많은 이득이 따르는 계약 건이 체결됩니다. 62년생 유명한 회사에 특채로 입사하게 되겠습니다. 74년생 일이 많아지나 마음은 편안합니다. 86년 생 누구나 때가 있는 법입니다.
토끼	51년생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63년생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합니다. 75년생 고집부리지 마세요. 87년생 부주의로 귀중한 물건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용	52년생 커다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64년생 윗사람의 충고를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76년생 하늘에서도 복을 내리는 행운입니다. 88년생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뱀	53년생 밖으로 나가면 좋지 않습니다. 65년생 자손들이 기쁨을 줍니다. 77년 생 사업이 번창일로에 있습니다. 89년생 남성은 훌륭한 아내를 맞이하게 되며 여성은 출가를 합니다.
<b>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들풀! 아이큐 쑥쑥!</b>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 3×3으로 이루어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b>전화운세상담 홍카페 10분 무료상담 이벤트!</b> 홍카페 접속 후 회원가입 시 추첨인 아이디에 METRO 입력하면 10분 무료상담!! 태로, 연애, 성리 1:1 전화상담 홍카페 <a href="http://www.hongcafe.com">www.hongcafe.com</a>	

# SUDOKU

			5			4		
	1	6		2				
4			2		3	1		
1								
4	2	5	3	7	8	6		
8			6			3		
2			4			5		
8	7				1			
5			8					

6		8			1			
1	3		4		7		5	
2			7			9		
8		5						
6			4					
3			9		2		8	
2			1					
9	1		5		3		6	
7			5		4		3	

스도쿠 정답								
5	1	4	9	6	3	8	2	7
6	3	8	7	5	2	4	1	6
9	2	7	1	4	8	3	6	5
8	7	5	2	9	6	1	4	3
4	6	2	5	3	1	7	8	6
1	6	9	8	2	9	5	3	1
7	4	6	8	2	9	4	7	5
3	5	1	6	7	4	2	9	8
2	8	9	3	1	5	6	7	4

문제 제공= **보뉴스**

## 동아쏘시오홀딩스

포항 지진 피해 주민에 재난 키트 전달

동아쏘시오홀딩스는 13일 포항시 북구 학산동에 위치한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재난안전키트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키트지원은 포항지진으로 피해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됐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혜영 사무처장(원쪽부터), 동아쏘시오홀딩스 한종현 사장,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이형관 관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13일 진행된 재난 안전키트 전달식에서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혜영 사무처장(원쪽부터), 동아쏘시오홀딩스 한종현 사장,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이형관 관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재난 안전키트는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상처치료제, 진통제, 감기약, 비상용 보온포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동아쏘시오홀딩스 한종현 사장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혜영 사무처장,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이형관 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 휴온스 한양대에 실습공간 '팹랩' 기부

휴온스글로벌의 자회사인 휴온스는 기업 사회공헌의 차원에서 한양대학교에 창의형 실습공간인 '휴온스 FABLAB(이하 팹랩)'을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열 '휴온스 팹랩'은 한양대학교 제2공학관 건물 2개층에 총 941㎡의 공간을 리모델링 하여 조성되었다. 공간의 내부는 3D프린터룸, 메이킹룸, 공학입문설계 스튜디오, IoT룸, 학생라운지 등으로 꾸며졌다.

'팹랩'은 제작(Fabrication)과 연구소(Laboratory)의 합성어로,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디지털 장비로 구현할 수 있는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실습공간을 뜻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성태 휴온스글로벌 부회장과 서병기 前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영무 한양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유재희 기자

## 김상회의四季

### 국운(國運)의 길흉(1)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핵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침예하게 치닫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설 등 여러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설왕설래되고 있다. 어떤 분들은 필자에게 우리나라의 안보위기 등과 관련하여 걱정하며 직설적으로 묻곤 한다. 그러나 흔히 말해지는 천기누설과도 같은 민감한 사항을 펼쳐놓고 얘기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시주명리학에서는 운기(運氣), 즉 운의 흐름이 사주팔자 자체의 좋고 나쁜 구성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 운이 절대적이란 얘기이다. 이러한 운기의 펼쳐짐이 개인의 삶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며 국운(國運)이라 통칭되는 나라의 운기에도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런데 일반인의 경우야 태어난 연월일시를 가지고 대운이나 세운 등을 태어난 연월일시에 대비하여 길흉을 따진다지만 나라의 국운이라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국가라는 것은 태어난 연월일시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보통은 주역점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주역의 간방을 따진 다음에는 그 나라나 왕조 수장의 운기와 연관 지어 국운을 살피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 된다. 이런 유로 춘추전국시대는 물론 그 이전의 주왕조에서는 반드시 주역점을 쳐서 나라의 길흉은 물론 대소사를 치루는 날짜를 정하고는 하였다. 우리나라의 성웅 이순신장군도 매일 그 날의 일진을 뽑아보는 점을 쳐서 운기를 살폈던 기록이 난중일기에도 보이기도 한다.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조직이나 사회, 더 나아가 나라의 국운의 길흉을 살피려면 항상 전조증상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어떤 불행이 다가올 때 우리는 "밤사이 안녕"이라는 말처럼 급작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은 사전에 여러 예시적인 현상이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보자. 우리나라에 IMF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충격이 있었다. 그 전에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라는 기가 막힌 사건의 전조가 있었다. 모두 김영삼 문민정부 당시에 있었던 비극들이다. 물론 문민정부 이전에 지어진 건물과 교량으로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결과여서 김영삼 정부에게 그 탓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군부통치를 끝내고 희망차게 출발했던 우리 국민의 가슴에 치유되기 힘든 상처를 준 비극적인 참사가 있게 된 것은, 경제성장의 자기도취에 취하여 아무지게 경제문제를 갈무리하지 못한 결과로서 IMF를 맞게 되는 비극의 전조였던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